

셋째 : 토착화의 원칙

하느님의 공평성에 바탕을 둔 구원의 보편주의와 맞물려 있는 문제는 복음의 토착화이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한 문화권 안에 들어갈 때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토착화의 기본 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진리 자체와 이 진리의 가변적 표현을 구별하는 것이다. 초대교회의 첫 토양은 유대교였다. 유대 이즘에 뿌리를 내린 그리스도교가 그리스 문화권 안에 길들여진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면서 갈등이 빚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지도부는 사도회의를 개최하였다(15,1-35).

한창 토론이 진행되고 있을 때 사도단의 대표로 베드로가 일어나, 코르넬리우스 개종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하느님의 뜻으로 일단락되었음을 상기시킨다(15,1-11).

베드로의 원칙적인 발언이 있는 후 야고보가 나서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백성이 서로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실천적 지침을 제시한다. 우선 야고보는 유대교를 거치지 않고 이방인을 그리스도교에 영입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인정하나(19절) 거기에 부수적인 조건을 첨부한다(20절).

야고보의 해결책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양쪽 모두의 양해를 구하는 현명한 절충안이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의 굴레를 쓰지 않고 곧바로 그리스도교에 영입되는 것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의지에 따른 것임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지시킨다. 다른 한편 이방인 신도들에게는 그들이 비록 유대교의 율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유대교의 오랜 전통적 종교 관습에 충실한 유대인들에게 혐오감을 줄 만한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한다. 유대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방인들의 행동이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지나치게 성적으로 방종한 짓을 저지르며, 피가 아직 몸 안에 남아 있는 목 줄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생명처럼 귀중하게 생각하는 피 자체를 마시는 일이다. 한마디로 야고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평화로운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은 형제애를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야고보의 이 결정은 사도들과 원로들의 인준을 받아 서신 형식을 통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지역 공동체들에 전달된다(22-35절).

바오로의 아테네 설교(17,22-30)는 토착화의 이 기본 원칙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그리스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인 아테네에 도착한 바오로는 습관대로 회당에 들러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양쪽 모두와 함께 토론하는 한편 광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화를 나누었다. 바오로의 아레오파고 설교는 그리스도교를 다른 문화권 안에 토착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전략과 원칙을 제시한다. 그는 먼저 아테네 시민들의 종교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후 그 종교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준다.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라는 신전 제단들에 새겨진 문구는 아테네인들이 만물의 창조주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공경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편 바오로는 이 설교에서 아테네인들에게 생소한 구약성경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성경의 표현들을 성경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 주 하느님을 소개하고 있다(24-26,29절). 다른 한편 바오로는 헬라적 용어와 사상 및 그들의 지혜문학을 도입하여(27-28절) 창조주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바오로는 비록 명시적으로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하느님께서 세상의 공정한 심판자로 내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전해준다.

넷째 : 위대한 선교사, 참 목자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마치고 트로아스에서 아소스를 거쳐 밀레토스에 도착한 바오로는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떠나기 위해 에페소 공동체에는 들르지 않고 밀레토스에서 사람을 보내 그곳 원로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 앞에서 한 바오로의 마지막 고별설교(20, 18-35)는 루카가 그리던 이상적 선교사와 목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바오로의 밀레토스 고별설교에서 바오로가 오랫동안 함께 일해 온 에페소 원로들에게 자신을 모범적인 선교사로 내세우고 있다. 루카에게 있어서 바오로는 후대에 길이 빛날 이상적인 선교사요 참 목자였다. 그는 천막을 만드는 비천한 노동으로 자신과 동료 선교사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면서(32-33절) 온갖 시련과

눈물 가운데에서도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다(19절).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처럼 사슬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주 예수께 부여받은 소명의 여정을 끝까지 마치고 봉사직을 성실하게 수행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23-24절). 에페소 원로들을 떠나는 마당에 바오로는 참다운 목자를 잃고 방황하게 될 에페소 공동체를 걱정한다(28-30절). 마지막으로 그는 원로들에게 자신이 그들에게 보여준 모범에 따라 약한 양떼를 잘 돌보고 그들에게 사심 없이 봉사해 줄 것을 부탁한다(35절).

루카 시대에 바오로가 창립한 소아시아의 공동체들은 거의 대부분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 원래의 순수한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다. 루카는 이런 상황에서 밀레토스 설교를 통하여 바오로를 변호한다. 즉 바오로 사후에 일어난 영지주의의 오류는 바오로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로 그는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순수했던 사도 시대를 대표하는 모범적 선교사였고 참 목자였다.

사도행전에서 바오로의 밀레토스 고별설교는 저자가 유일하게 교회 성직자들을 겨냥하여 행한 설교이다. 이 설교에서 양떼에게 경제적 짐을 지우지 않으려는 세심한 배려, 복음에 대한 열정, 겸손한 봉사, 자나 깨나 눈물로써 다른 지도자들을 충고하고 걱정하는 마음, 약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돌보아주고,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삼는 모습들에 나타난 참다운 목자 정신은 세기를 두고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커다란 귀감으로 남게 될 것이다.

다섯째 : 호교론

인종과 문화와 지역의 장벽을 넘어서 하느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된다는 구원의 보편주의야말로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이다. 이 대주제 다음으로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교의 호교론이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21,17-28,31)에는 루카의 호교론이 구원의 보편주의를 바탕으로 전면에서 등장한다.

루카는 우선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스도교가 유대교 전통에 충실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루카의 묘사에 의한 바오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경신례와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을 존중했고 그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맺으려고 언제나 노력해왔다. 어느 선교지에서든지 바오로는 항상 유대인들의 회당이나 기도처에 들러 이방인들에 앞서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에 관한 바오로의 가르침을 모독하고 배척하였다. 이 가르침은 유대교 자체의 중요한 믿음인 메시아에 대한 희망과 부활에 대한 교리와 직결되어 있다.

루카의 호교론은 구원의 보편주의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곧 하느님의 구원계획에 따라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에서 발전된 종교이며 율법과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경전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을 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루카는 로마인들 앞에서 그리스도교를 안전하고 평화로운 종교로 소개하고자 했다. 그는 바오로의 변호 연설들 안에서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임을 역설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가 로마로부터 얻어낸 신앙의 자유를 함께 나누어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유대교가 로마로부터 ‘합법적으로 허락된 종교’로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른 한편 바오로는 유대인 법률가 테르틸로스가 자신에게 뒤집어씌운 정치적인 죄목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바오로는 총독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그동안 “성전에서도 여러 회당에서도 시내에서도 어느 누구와 논쟁하거나 군중의 폭동을 유발하는 것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음을 상기시키며(24,11-12) 유대인들의 고발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펠릭스 후임으로 유대 총독이 된 페스투스 앞에서도 바오로는 유대인들의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는 물론 “황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25,8). 이런 바오로의 변호에 대해 로마의 정치인들과 심지어 유대인들의 왕 아그리파스까지도 바오로가 무죄임을 인정하려 든다.

사도행전 마지막 절은 바로 이 같은 루카의 호교론을 잘 드러낸다. 이 구절의 배경에 깔려 있는 루카의 논지는 이렇다. 바오로가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 안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매우 대담하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로마인들이 그리스도교를 안전한 종교로 인정했기 때문이다(31절).